

● 여성운동의 유일한 통로 - 총여학생회 건설과 이 시기까지의 운동전략

80년대 초반만 해도 학도호국단이라는 군부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도에서 광범위한 대중투쟁에 의해서 학생자치권력의 학생회는 건설되고 학원안에서 가장 감위력한 대중활동 공간으로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대중자치조직 건설의 움직임은 학생운동 안에서 여성학 연구모임들이 생겨나게 하였고, 87년초 대중운동이 활성화 되고 대중조직이 건설되면서 소모임적 여성운동단위들은 조직 구조의 전환을 시도한다. 즉 여학생 운동이 여학생들의 존재적 특성,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중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했을 때 총학생회 체계로서는 이를 담보해 나갈 수 없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낼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이다. 당시 여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여성운동의 변혁적 성격과 임무, 당시 여성들의 생활 처지와 조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목적의식적인 여학생운동주체의 활동과정을 통하여 여학생의 정치적 각성과 지도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 ② 여학생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사업이 계획, 집행, 평가까지 일관되게 담보되어야 한다.
- ③ 스스로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적, 조직적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사람들은 '총여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한 총여학생회 건설 준비위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선 여성운동론을 정립하여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 조직관계를 다시 구성하는 것, 다양한 모임을 확대 발전시켜 조직기초를 다지고 일할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 등의 조직내공을 준비하고 내용을 축적할 것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여기에 운동분리주의라거나 조직만능주의라는 등의 많은 비판과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대부분이 88년도 이후에 총여학생회를 건설하게 된다.

⇒ 대중자치조직으로 학생회가 자신의 역할을 하였던 시기에 총여학생회 또한 여학생 대중 자치조직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학생운동안에서의 독자적인 여성 운동단위로 존재하였다는 의미에서 총여학생회의 건설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성의 불평등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학생 대중자치조직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동의 틀거리로 존재할 수 있기에 그러하다. 그러나 학생운동의 단일한 운동이 넘어 낡은 오류 속에서 총여학생회의 활동은 여성운동의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며 언제나 중

심운동의 종속된 활동, 보조적 활동을 하게된다. 총여학생회의 독자적인 활동의 부재, 그것은 총여의 위상자체를 흔들려 놓게 되는 암적인 요인을 잉태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또한 '여학생 대중자치 조직의 틀거리로써 존재하지 못하는 총여'와 '여성운동 단위가 꼭 총여학생회여야만 하는가'라는 현재적 문제제기는 총여제도 자체의 원인이 아니라 현재 학생회제도 자체가 학우대중의 자치조직으로써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학우대중과 괴리를 확대 재생산하는 학생회 중심노선에 입각한 발본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 ● 학생운동의 이념에서 배제된 여성운동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조국통일' '노동해방'이라는 핵심적 가치가 설명해 주듯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말엽의 현재까지 이것은 학생운동의 중심적인 사상이다. 사회구조의 모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상적 기반은 학생운동의 절대절명의 진리로 위치하게 되고, 학생운동은 이러한 기반위에서 대사회적인 투쟁들을 벌여나간다. 그러한 투쟁의 과정 속에 학생운동은 자신의 역사를 가지게 된다. 그러한 투쟁의 역사과정은 학생운동의 이념을 '통일'과 '노동'이라는 단일함을 취하게 되며, 그 안에서 학생운동의 사상적 기반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여타의 다른 운동의 영역은 통일과 노동이라는 운동에 종속되거나 부차적인(주변적인) 운동으로 취급받는다.

### ① 조국통일진영에서의 여성운동(전여대협의 운동을 중심으로)

전여대협은 여성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봉건적 사상과 자본의 지배논리를 타파하고 여성의 자주성 실현으로 인간해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50만 여학도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전여대협은 일제 식민지 치하의 여성들의 민족 해방투쟁을 계승하여 미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 민중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여, 역사의 주인인 청년여학생의 힘과 지혜를 모아 여성해방을 실현한다.

-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의 전문 -

- 여성의 성침탈에 앞장선 미국과 일본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의 부당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간섭과 침략을 막아내고 민족자주권을 회복하여 여성의 자주화, 조국의 자주화를 이룩한다.
-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제국주의 문화와 소비 향락적인 문화를 척결하고 학원과 생활 속에서 건강한 민족, 민중적 문화를 일구어 나간다.
- 50만 여학도가 앞으로 사회에서 민족중흥과 조국발전의 당당한 주체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서기 위한 학문의 습득과 단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전여대협 강령 中 -

## ② 노동해방진영에서의 여성운동

적대적 모순은 근본적으로 서로 대립된 목표와 이해를 가진 사회세력이나 계급간에 존재하는 모순이다. 적대적 모순의 전형적인 표현으로서는 서로 대립하는 계급간의 관계, 즉 노자적대의 모순이다. 따라서 그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속적인 계급투쟁과 사회혁명이라는 형태를 취한다. 반면 비적대모순은 생활조건에 있어서 근본적 목표와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제계급이나 사회세력간의 모순이다. 비적대적 모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서로 대립하는 측면이나 경향이 양극화될 객관적 필요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순은 적대적 모순이 해결이 되면 교육활동에 의해, 모순을 야기시키는 조건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에 의해 점진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맑스주의는 비록 전유와 착취관계를 둘러싸고 구성되어 있지만 착취자나 피착취자의 성(gender)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또 언급할 수 없는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에 대한 맑스주의 분석은 노동과 자본간의 갈등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는 무성적(sex-blind)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식민지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 자주적 평화통일이 실현 되어야만 여성의 자주성을 회복하여 여성해방을 이룰수 있다고 하는 관점이나 노자의 적대적 모순이 해결이 되면 여성억압은 점진적으로 소거되어 여성해방이 될 것이라는 관점은 오십보백보인 것이다. 즉 통일이 되면, 노동해방이 되면 여성억압은 사라질 것이라는... 존재하는 다양한 모순을 단일한 모순으로 소거시켜내는 과정 속에서 여성운동은 주변운동으로 위치하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이 되기 전까지, 노동해방이 되기 전까지 여성들은 자신에게 가해져오는 억압과 불평등을 감수해내면서 오로지 통일과 노동을 외쳐대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논리가 교수에게 강간을 당한 여학우가 학교명예를 운운하는 거대한 집단들에 의해서 또 한번의 여성의 인권이 짓밟히는 현실과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운동의 이념은 여성운동을 주변적 운동으로 위치하게 한 부분과 성의 불평등함과 억압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에 대한 이론 또한 적합하게 분석하지 못한 결과 속에서 여성운동의 이론적 기반은 지극히 취약한 상태를 낳게 한 것과 여성운동 전략의 부재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 ● 여성운동의 현재

과거의 여성운동이 중심운동에 종속된 형태로 존재하였다는 것은 성의 불평등과 억압에 대한 분석 부재와 여성운동의 독자적활동 부재 그리고 여성운동의 전략의 부재를 임대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에는 여성운동단위의 독자적 활동을 구축 하려고 하는 자생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여성운동은 과거의 주변적이고, 종속된 활동으로 진행되어져왔던 잔재와 여성운동의 전망의 불투명 속에서 과도기적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여전히 주변적인 운동형태로 사고하는 여성

운동진영과 전체 운동과 여성운동의 관계 설정이 부재한 속에서 여성운동의 독자적 활동을 분리주의라 비판하는 진영이 존재하는 가운데 여성운동은 끊임없이 독자성과 고립성의 경계극기를 시도하고 있는 상태가 현재의 지반이다.

### (1) 여전히 여성운동은 중심운동으로 종속되는가? (전여대협활동 중심으로)

#### □ 정치 사상적 노선

- 함께 하는 삶 속에서 봉건성 타파, 민족 의식 고취로 자주적 여성상의 구현(기치)
- 식민지 여성의 자주성을 어떻게 고양시킬 것인가에 고민의 중심을 두던 전여대협의 활동은 자주적 여학생 운동에 대한 고민을 정리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목표지점이 바로 '자주적 여성상의 구현' 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사상적 목표로 자주적 여성상을 구현할 것을 내세운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평가)

#### □ 대중적 노선

- 50만 여학우의 힘 모아 정신대 문제 완전해결 투쟁, 반미 반김 투쟁 전면화로 민족 자주권 회복과 민족 대단결 의식고취, 통일 조국 건설하고 인간해방 한 길로 달려가자 (기치)
- 평가 중 일부  
정신대 투쟁 : 한계지점 - 김영삼 정권의 본질(사대적이고 반민족적인 정권이라는..)을 폭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반김투쟁으로 이끌어 가기에 애매한 지점이 많았다.

---- 2기 전여대협의 평가와 3기 전망 중 일부 ----

여성운동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자주적 여성상'을 구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자주적 여성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함의 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추측하여 본다면 미제국주의 식민지인 남한은 민족의 자주성을 상실하였기에 남한에서의 운동은 상실된 민족 자주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전히 통일이라는 중심운동으로 여성운동을 주변적 위치에 존재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주적 여성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것인지가 불명확하다. 여성억압의 기제 중의 하나로 작동하고 있는 전통적인 성별이데올로기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공고화시켜내는 과정 속에서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은 순결한 육체와 순종적인 미덕 그리고 섹시한 아름다움을 지녀야만 하는 여성으로 만들고자 전통적인 여성상을 모든 여성에게 훈육하는 현실과 '자주적 여성상 구현'이라는 테제로 또 다시 여성을 대상화 시켜내어 동일한 여성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이 다른지 그 차별점을 찾을 수가 없다.

### (2) 여성운동은 0 ` 성정치는 100

과거 주변적이고 종속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왔던 여성운동은 사회구조 속에서 파생된 성의 모순에 대한 분석 속에서 독자적인 활동들을 펼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한 운동은 현실에서 취약한 지반과 초보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학운안에서의 여성운동에 대한 왜곡된 시각들은 여성 운동의 독자적인 활동을 분리주의나 고립된 활동으로 일반적으로 읽혀지고 있

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94년 성정치 담론의 급속한 확장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학생운동 안에서 여성운동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편견이 존재하였던 것과는 달리 성정치 담론은 높은 지지 속에서 급속도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성정치에 대한 이론적인 입장은 차지하더라도 왜 성정치 담론은 대부분의 좌파 학생 진영에게 성해방의 확고부동한 위치에 자리매김 될 수 있었는가 이다. <그렇다면 여성해방과 성정치 담론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이다> 어쩌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 성정치 담론과 여성해방의 입장이 현실에서는 왜 그렇게 위치가 다르게 읽혀질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성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다. 성이 끊임없이 구조화, 제도화 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은 기존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구조에서의 권력 관계는 성을 주조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대로 투영이 되면서 사회구조 속에서 성의 모순은 파생된다. 성에 있어서의 약자, 성적소수집단은 성의 불평등과 억압된 현실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성정치의 담론에서 말하고 있는 성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은 성의 모순이 사회구조 속에서 파생된다는 의미이다. 즉 성정치 담론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과 여성해방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성의 모순이 사회구조에서 파생된다는 것은 동일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성정치운동은 여성운동과 상이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 '성정치'담론의 다소 충격적인 등장(?)과 '성정치'라는 언어의 상징적 의미가 주는 효과로 인한 신선함으로 인하여 성정치 운동이 크게 위치지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성정치 담론은 성에 대한 문제점 환기이다. 즉 사적이고 금기시 되었던 성에 대한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공론화 시켰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그로 인하여 많은 성정치 운동 단원들이 건설되고 동성에 인권운동<sup>55)</sup>이 활성화되었다. 성정치 담론이 우리에게 주었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성문제에 관한 여성운동과 성정치 운동이 상이한 위치를 점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80년대 중반 부터 시작되어 활성화 되었던 여성운동은 대중운동화 되지 못한 취약한 운동지반과 여성운동의 내재적인 한계로 인하여 90년대 침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성정치 담론은 기간 여성운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읽혀짐과 동시에 여성운동에 대한 기존의 뿌리깊은 왜곡된 시각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운동에 대해 흔히들 사고하는 지반은 여권신장의 의미로 남성을 적대화 시킨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여성운동은 여성들의 불만어린 투정으로 읽혀지고 있는 것이다. 여성운동은 사회구조 속에서 파생된 성모순에 대한 문제제기로 제기되는 운동이 아니라고 사고하는 것이다. 성정치 담론이 여성운동과 상이한 위치에 존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성운동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성의 불평등과 지배적인 가부장제 권력의 현실이 학생운동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 속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3)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여성운동 단위

학생운동 안에서 기간에 배제되어왔던 여성운동은 90년대 초중반을 경과하면서 사회 구조속에서 파생된 성의 모순을 인지하는 가운데 학생운동 안에서 여성운동의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시기는 '학생운동의 위기' 담론이 제기되었던 시기와 비슷하게 형성되어진다. 학생운동 안에서 중심적인 운동구조인 학생회질서와 학생운동의 단일한 이념에 대한 문제

55)성정치 운동과 동성애 운동의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정치 담론의 활성화 이후에 활성화된 동성애인권운동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기에서 기인 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의 현실태는 여성운동의 독자적 활동메카니즘을 구축하기 위하여 총여학생회가 아니라 다양한 연대모임, 또는 위원회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 지금까지 전체적인 학생운동 사이에 하나의 부문운동적인 성격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던 여성운동을 자체적인 전략을 가진 하나의 운동의 큰 흐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따라서 각 학생회 사업(새터나 대동제, 농활) 등에 자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며, 문화제 등의 사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대학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관련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대처할 것이다.

--- 서울대 '관악 여성 모임 연대' 활동 방향성 중---

□ 여성자치 연합은 학내 다양한 여성관련 모임들이 만든 연합체이다. 여성자치 연합은 여성문제는 항상 사적인 공간(정치와 는 거리가 먼)으로 치부된다는 현상에 집중을 하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의 형태, 새로운 운동의 방식을 고민하고자 만들어졌다. 여성자치 연합은 기존의 총여학생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권력' 을 사고한다. 총여학생회는 대표체로서, 위에서 하달되는 방식의 권력 이겠지만 여성자치연합은 아래에서, 학 우들 사이사이에서 권력을 사고한다. 즉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들이 지속적으로 탄생되는 것이 여성 문제를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여성문제는 누군가에 의해 대변되거나 여성운동이 다른 누구에 의해 대신 될 수 없다.

---- 연세대 '여성자치 연합' 자료집 중----

## ● 대학사회에서의 여성운동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 여성운동은 자생적이고, 독자적인 활동들의 움직임이 활성화 되면서 나름대로의 활동 메카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과거 주변적인 운동으로 존재하였던 여성운동은 나름대로의 전략과 독자적인 활동의 부재와 이론 또한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그러한 취약한 운동지반안에서 막 태동하려고 하는 여성운동에 대해 학생운동은 학생운동의 통일된 사상적 지반(노동, 통일이라는 중심운동)을 통해서 여성운동에 대한 성급한 재단과 가치절하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학생운동과 주변운동으로의 여성운동이 연대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미 모든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학생운동 이 여성운동과 동등한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얼마나 시덥잖은 일이었겠는가? 그래서 당연하게도 학생운동에 관심있는 여학생운동집단은 학생운동에 '복무하는' 부문운동으로서 역할을 외치며 고립되었다. 학생운동과 여성운동과의 보이지 않는 불신과 여성운동의 고립성의 문제는 과거 학생운동의 이념과 구조 속에서 잉태된 결과이다. 학생운동의 위기의 담론이 폭발되고 있고 학생운동의 새로운 순환을 모색해야 하는 현재 기간 학생운동 안에서 배제되었던 주변운동(여성운동)들의 활성화 과정과 학생운동의 새로운 모색은 동일한 지향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것에 대한 모색의 과정을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

### 여성운동단위의 독자적인 활동을 구축하라

기간 여성운동단위의 활동은 중심운동에 종속되어진체로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여성의 억압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른 문제설정하에서 취하게 된 운동전략이었던 것이다. 즉 대학사회 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운동은 90년대 초반까지 여성억압의 원인을 독자적인 모순으로 파악하지 않고 전체운동의 변혁의 과제 중 하나라고 사고 하면서 전체운동 속에 종속되는 운동전략을 취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현실은 대학사회에서의 여성운동의 현실과도 궤를 같이 하는 지점인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초반을 경과하면서 여성억압에 대한 독자 모순의 파악 속에서 독자적인 활동전략을 구축하려는 시점인 것이다. 대다수의 총여학생회가 대학사회의 여성운동 단위로서의 자기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움직임이나 자생적인 여성운동 단위들의 형성은 여성운동의 독자적인 활동의 흐름이 형성되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독자적인 활동은 끊임없이 여성을 주체화 시켜내는 과정 속에서 여성운동이 활성화 되는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학사회안에서 가장 취약한 운동지반을 형성하고 있는 여성운동은 더욱 더 독자화 되고 활성화 되어야만 한다. 학생사회 안에서 취약한 운동지반을 형성한 원인은 여성운동 내부의 원인과 여성운동 외부의 원인이 '따로또 같이' 존재할 수 있다. 첫 번째의 요인은 기간의 여성운동의 역사의 한계로 인하여 여성억압의 명확한 입장의 불명확함은 운동전략의 부재를 잉태하였고, 여성운동의 대중화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동하였다. 두 번째는 여성운동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불신으로 여성운동에 대한 가치절하를 해온 학생운동에게 존재한다. 학생운동 내에서 여성운동에 대한 의미성들은 구조의 모순으로 파생된 운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몇 몇 소수의 불만투성이들의 개기는 소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억압과 불평 등의 문제는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 속에서 파생되는 문제임을 여성운동 단위들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즉 여성운동 단위들의 정체성 확립과 그 속에서 합의되는 여성운동 전략을 통해서 여성운동 단위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벌여내어야 하며, 그 독자적인 활동은 여성운동이 하나의 운동세력의 집단으로 존재함을 우리 스스로 규정하고 여성운동에 대한 지반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학생사회 안에서, 운동안에서 표출되어야 할 것이다.